

2.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뽕기획자’ 박상현입니다. 작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나를 위한 프로젝트’를 해봤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산으로 간 배’ 활동이 이 사건의 계기였습니다. 저는 뽕족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그런 사람보다는 뽕족한 사람이 재미있기에. 그런데 저는 뽕족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배운적도 누군가 알려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뽕족함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건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어느새 의도치 않게 나의 뽕족함의 시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몸뽕’이라는 단어의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좋아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고민하기보다 직접 움직여 몸으로 부딪치면서 겪는 경험을 재미있어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몸뽕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 몸뽕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세우고 만들고 있습니다.

3. 본인이 가장 끈기 있게 시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적어주세요(이유포함)

정말 개인적인 서사 중에서는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의 말을 크게 믿지 않고 나의 경제적 신념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달랐습니다. 과거 대학생시절 건축설계실에서 과제를 하던 도중 컴퓨터가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 4년치 데이터가 잠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싶다면 1비트코인을 입금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1비트코인은 백만원이었습니다. 백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치의 데이터를 눈뜨고 코베였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시기 주변 여러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도전하였고, 제 귀에는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1비트코인이 몇천만원이야” 잊고 살았던 과거가 한순간에 다시 떠오르며 후회를 함과 동시에 바로 저는 비트코인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향곡선 배에 타게 되었고, 그 배는 침몰해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다시 배는 뜰다는 것을. 정말 끈기 있게 버텼지만, 현실에서의 궁핍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긍정회로는 지금 당장의 내일의 삶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저버리고 가상화폐의 세계를 탈출하였고, 지금 저는 주식도, 가상화폐도 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의 삶을 문화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에 중독되어 우연을 찾아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무엇일까요. ‘목적성 없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서 마주치는 우연한 순간들을 어찌면 우리가 만날 수 밖에 없었던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불확정성이 사건을 만들 때가 기획자의 본질인 수행적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집안의 사물 중 가장 슬픈 사유가 있는 사물을 소개해 주세요.

작업실에서 내 집으로 이사온 커피포트. 작업실 오픈하면서 선물받은 커피포트는 근 2년간 정말 쓸모가 있었지만, 나의 게으름과 관리 소홀로 잊혀졌던 커피포트가 새로운 나의 자취방 터에 이사와 다시한번 기회가 생기는 줄 알았으나, 역시나 지금도 잊혀져 있습니다. 커피포트에게 저는 두 번의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아픔보다는 행복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당근으로요.

6. 단 10분만 주어지는 여행을 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지를 상상해서 써주세요.

타자의 몸에 빙의되어 그 사람의 삶을 10분 동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중 가장 빙의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연인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실행이 어렵습니다.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빙의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7. 농담 하나만 해주세요.

앞으로 눈뜨고 코베일 날이 없길 바랍니다.